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體를 巡訪하고〔Ⅱ〕

金 枝 泰 —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 필리핀 / 天惠의 나라

우리 一行은 짧은 홍콩일정은 끝내고 CX901편으로 11개의 주요 섬과 2천여개나 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세번째 방문국인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연착된 하오 2시경이었다. 연착된 까닭은 홍콩을 출발한지 1시간쯤에 여객기의 양쪽 엔진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내뿜어져 결국 回航, 다른 항공기로 바뀌어 타고 오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새삼 여행은 生死를 運命에 맡기는 超然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새겨지는 순간이었고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아찔해 진다.

트랩을 내려서니 南國의 열기가 우리나라 초복 날씨같았다. 현대적인 최신시설을 갖춘 공항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항건물은

휴사 듯때기 시장같이 붐비는 데다가 시끄럽고 불결해서 필리핀의 이미지가 찍혀 흐려질 것 같아 이방인인 우리조차 우려가 되었다.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 일행은 안내인의 차로 호텔을 향해 마닐라만의 연안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망고나무들은 오후의 무르익은 햇빛과 시원한 바닷바람 춤추듯 흔들거리고 있어 南國의 정취가 한결 더했다.

구시가지에 위치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필리핀은 영어 사용국으로의 사소통에는 별로 불편은 없어 다행이었다. 곧바로 우리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崔參事官(崔昌奎 前韓國建築家協會長의 親弟)께 우리 일행의 도착을 알리니 매우 반가워 하면서 이미 협회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알고 있으며 부

탁한 관계단체와의 협조사항도 주선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오후 6시경 대사관에서 추천해준 공식통역 겸 안내인인 朴炫模(연대출신) 씨를 만나 그와 다음날 있을 필리핀 건축사 단체와의 회합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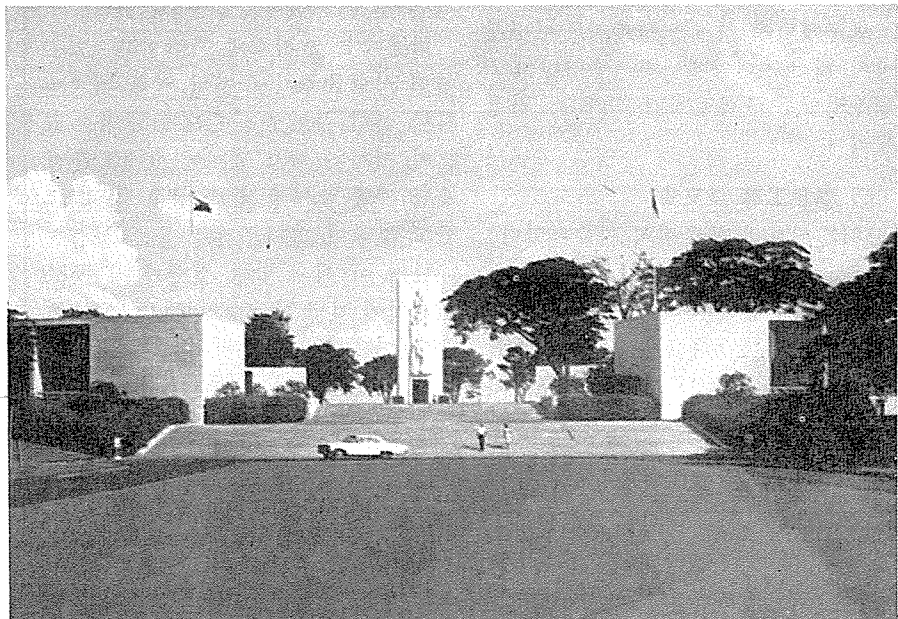
안내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 단체에서도 대만에서와 같이 대사관으로 수차에 걸쳐 우리 일행의 도착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도 있었다고 한다. 대사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일행의 도착에 차질이 있을까 해서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알게됐다.

우리는 피로를 풀겸 저녁노을이 물들어가는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 프라자호텔 가든휴게소를 찾았다. 연안에 정박한 선박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은 이 휴게소는 마닐라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라 한다.

넓직한 정원에는 南國의 각종식물들이 조명등빛과 어울려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듯 한층 분위기를 높여준다. 젊음을 구가하는 청춘남녀들이 풀장을 누비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은 열대 과일을 들며 피로를 풀었다.

각국 순방에 오른지 엿새째밤을 마닐라에서 보내며 그간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다음날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대사관을 찾으니 대사님을 비롯해 관계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대사님은 건축에 관한 폭넓은 상식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건설부에서 파견되어 와있는 李建設官은 필



□ 전물용사모지



□ 필리핀의 명물 “지프니”

리핀의 건설현황과 이곳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활동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이번 심방목적달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최참사관의 필리핀에 관한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귀중한 내용들이었다.

상오 10시30분에 이곳 건축단체인 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속에 필리핀 특유의 傳統樣式(스케인풍)으로 된 2층 건물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에 붙어있는 현판에는 “ARCHITECT CLUB”이란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띈다. 우리일행이 안내된 곳은 중앙에 15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원탁테이블이 놓여있고 차분하고도 안정감있게 꾸며놓은 2층에 있는 회장실이었다.

정중하고도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자리를 함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어서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人士들은 모두 8명으로 필리핀의 건축단체를 이끄는 핵심적인 인사들로서 건축사 5명과 대학교수 2명, 그리고 홍일점으로 여류 건축사가 1명 있었다.

필리핀 건축사 연합회 회장인 MR. 멘도자씨는 필리핀 건축계뿐 아니라 동남아 건축계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건축단체도 종전에는 3개 단체가 있었으나 1979년 정부의 권유로 통합되어 지금의 연합회로 발족된 이래 많은 업적을 쌓았을뿐 아니라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 외교의 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 통합단체로 발족하는데 약 10년이라는 진통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U.A.P가 주관하는 동남아제국

과의 국제회의만 해도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會員國 10개국), AAPH (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 會員國 5개국) 등이고 이밖에 세계적인 국제기구인 UNESCO, U, I, A, A. I. A 등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U. A. P의 명예총재로는 필리핀정부의 환경청장관이며 마닐라특별시의 명예시장인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영부인 이멜다여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A. A. P. H의 국제회의 교류는 이멜다여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연합회의 활동상황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며 폭넓은 활약으로 자기업무에 긍지를 갖고 얼마든지 작품활동을 통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어 우리의 실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약 1시간30분에 걸친 회담내용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에 관한 내용으로蓄妾에 따른 건축사의 징계문제로 연합회로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따위의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지 머리를 가우뚱하고 있었다. 그곳 사정은 우리네와 다른 모양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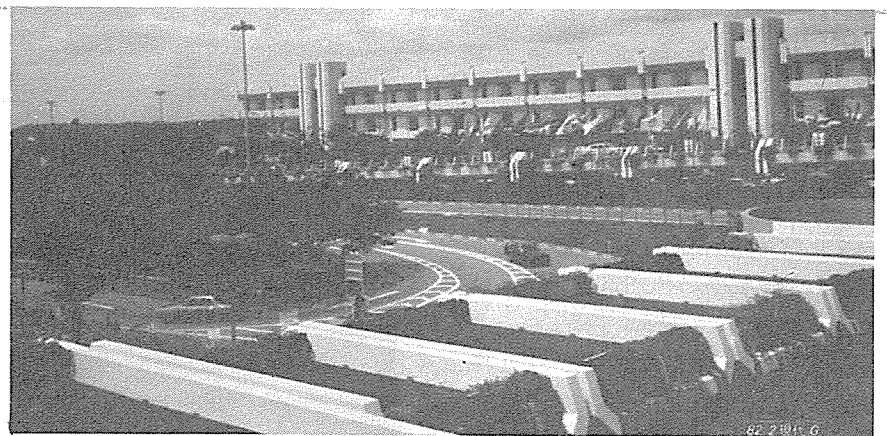
회담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MR. 멘도자에게 홍콩건축사공회장인 MR. POON을 만나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하였더니 무척 반가워 하면서 ARCASIA의 회원국인 홍콩에서는 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서 그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텁다고 전하며 싱가포르에 가면 SIA (SINGAPORE INSTI-

TUTE OF ARCHITECTS)의 중추적인 건축사인 MR. SIM HONG BOON을 만나보고 심방에 따른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라고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양국 단체간의 유대공고를 위해 ARCASIA나 AAPH가구에 가입토록 권유를 받았으며, 그는 자기들 단체를 심방해 준데 대해 기쁘기 한량 없다면서 관계자료와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을 기증받았다. 具會長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아쉬움을 남긴채 그곳을 떠나 차에 오른 것이 오후 1시30분경이었다. 참석 인사들은 한결같이 다시 올 때는 시간 여유를 많이 갖고 지역건축사회의 관계인사와, 50여명의 여성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연합회 여성 위원회의 간부들과도 인사를 나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O 식 스케줄을 마치고 2차대전메모 산화한 美軍의 전몰용사 기념묘지 (THE AMERICAN MEMORIAL CEMETRY)를 찾았다. 넓고 푸른 잔디에는 이름모를 화초들이 붙어오는 바람과 함께 살랑이고 묘지 입구에 우뚝 솟은 記念碑閣의 내부 홀 대리석벽에는 당시의 처절했던 전투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기념탑에 부각된 人像들의 모습은 넓은 잔디속에 잠들어 있는 1만 7천명의 孤魂들을 달래주듯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듯 했다. 시내에 들어서니 2차대전의 유품인 거리의 무법자같은 “지프니” (JEEPNEY)가 일정한 정류장도 없이 손님을 찾아 거리를 마구 누비고 다닌다. 칠차형 차량을 개조한 유리없는 창틀에다 外樣만을 요란하게 장식한 10인승인 이 자동차를



□ 싱가포르공항

시민들은 즐겨타는 듯 했다.

新市街地와 재개발지구를 다니보니 근대화된 현대식 건물들이 SKY-LINE을 이루고 각건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필리핀 특유의 풍토에 알맞게 소화되어 개성이 뚜렷한 것 같아 우리 일행의 시선을 끌었다.

마닐라만 연안을 따라 매립한 넓고 시원스런 푸른 광장에는 필리핀의 현대건축을 대표할만한 최신의 공공건물들이 열대수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돋보였다.

대사님과 필리핀의 현대건물에 관한 대화에서 꼭 견학하고자 추천받은 건물로서 P. I. C. C (PHIL,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규모는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육내행사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집회장으로서의 기능과 설비시설을 갖춘 이 건물을 관심있게 견학했다.

3층 정도 밖에 안되는 건물높이에 DESIGN요소가 많지않아 단조로우면서도 面構成의 비례가 잘맞게 조화된 外觀, 국제회의진행에 불편없도록 기능적으로 처리한 각종회의실과 부속실, 조금도 답답함을 느낄 수 없는 内部의 조용하고도 간결한 공간 처리, 군중들 행동 행동 흐름에 적합하고도 무리없는 동선처리 등에서 상당한 연구계획 끝에 이만한 작품이 창조되었으리라 느껴졌다. 특히 마감 관계자로는 사치하지 않을 뿐더러 질감 그대로의 소박한 표현수법이 오히려 격조높은 건물로서의 면목을 보여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유사성은 있으나 이 건물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건물 이외에도 이 광장근처에 산재하는 건물로 건물형태를 自然接氣 방식을 위주로 하여 다이내믹한 構造美를 강조하고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민속극장이 있다.

다 른 건물역시 개성이 뚜렷하고 구조미와 디자인미가 조합된 필리핀 文化館과 공업전시센터 등을 돌아 보고 석양녘인 오후 6시30분경에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 일행은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마닐라의 번화가를 찾았다. 우리네 생활감정과는 다른 필리핀인의 특유의 기질이랄까? 인생

을 애조이하기 위해 짝을 지어 그들의 정열을 불태우기 위한 장소를 찾아 거리를 헤맨다.

곳곳에 사진만이 걸려있는 HOLDAY SHOW GIRL의 油頭粉面의 미소진 얼굴들이 우리 일행의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의 지배(380년간)와 미국의 지배(약 50년간) 등 오랜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2차대전의 종전으로 완전 독립국가가된 필리핀의 역사로 미루어 다소 落後性이 보였지만 천혜의 지하자원과 낙천적이면서도 성실한 국민성으로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탈바꿈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곳 건축단체 인사들의 권투를 빌며 필리핀을 떠났다.

□ 싱가포르 / 초원의 도시

12일 이른 아침, 우리 일행은 PR5 01 편에 몸을 실고 약 3 시간만에 예정된 도착시간대로 상오 11시경에 인구 250만의 중국계 나라인 섬나라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에 닿았다.

국제적으로 수준급인 공항건물을 살펴 보았다. 出入國에서 오는 혼잡성을 피하고자 합리적으로 잘 처리된 動線, 시원스러우면서도 造形, 으로 아름답게 構成된 内部空間과 사용자 위주의 제반시설들은 우리 전문가인으로서 하여금 관심을 끌게하는데 족한 건물이라 하겠다. 싱가폴은 여러모로 홍콩과 비슷한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都市國家라는 표현이 알맞을지 모르겠다. 부존자원도 없으면서 국제무역면에서 또는 공업화 계획으로

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올리고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차이가 있다면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인 반면에 싱가폴은 완전한 독립국가(1965. 5월독립-말레이시아로부터)이고 보면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생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CHANGI 국제공항에서 잘다듬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시내로 들어가는 차창 밖에는 잘 정리된 도시시설이나 아파트 건물이 마치 공원속을 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말로만 들던 초원의 도시임을 다시한번 실감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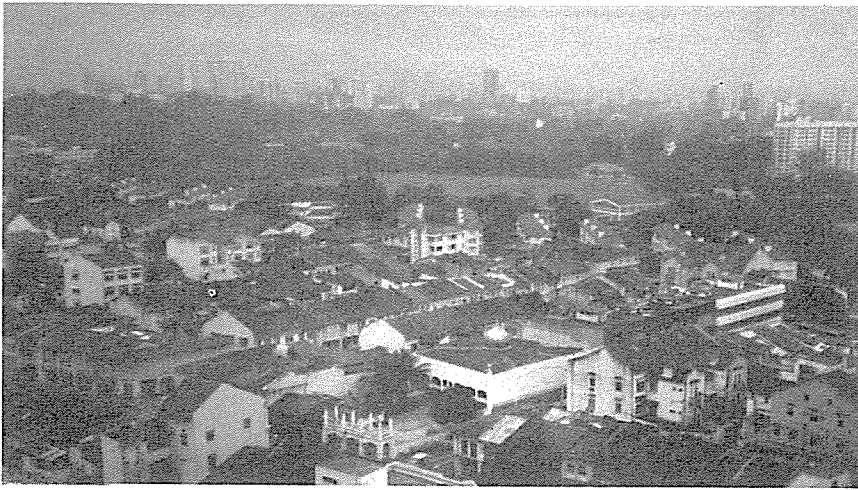
우리 일행은 예약된 PRESIDENT MERLIN HOTEL에서 짐 보따리를 풀었다. 이곳에 오는 길에 택시 운전사의 말이 강하게 떠오른다.

즉 오늘의 싱가폴이 있기까지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우리 일행의 도착을 알리고 하오 3시경 SCOTTS ROAD에 있는 대사관을 심방하였다. 대사님은 출타중이라 유명하서기관을 만나 건축단체와의 협의결과를 알아보니 필리핀의 경우처럼 순조롭지 못한 것 같았으나 다행히 우리 일행의 심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체와의 연락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되었다.

유서기관의 말에 의하면 협조공문은 이미 받아 보았으나 처리해야할 공판 업무에 쫓기고 또 이곳 건축단체와 전혀 접촉이 없던차에 이를 주선하고



□ 싱가포르의 아파트群



□ 싱가포르의 구시가지

자 사방으로 탐문하느라 힘이 들었다는 그간의 경위 설명을 듣고 오히려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날 다시 찾기로 하고 시내를 돌아 보기 위해 중심가의 인파 속에 휩쓸렸다. 중국냄새도 풍기는듯 했으나 대체로 서구화된 도시경관이었고 준비한 고층건물은 하나같이 독특한 형태와 개성미를 지닌 현대감각이 충일된 건물들이 각기 높이를 자랑하듯 치솟아 있었다. 한마디로 건물들이 많았다. 영어가 공용어인 싱가포르의 시민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활력에 넘쳐 보였다.

특히 국민들의 75%가 중국계라 그런지 異國에 여행은 기분이 들지않을 정도였다.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강력한 공업국으로서 발전한 요인은 중국인의 상술과 근면성에 있었고 오랜 영국치하의 축적과 유럽, 중동 그리고 극동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로 활용한데 있다고 생각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색다른 저녁 식사를 들고자 근처에 있는 중국식대중식당에 들어가 그들이 즐겨먹는 식사를 시식해 보았으나 구미에 맞지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송충이는 술일을 먹어야 한다는 숙담처럼 우리는 한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토요일의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신 것 같았다. 약속된 시간에 대사관을 찾아 대사님을 만나뵈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서기관의 안내로 이곳 건축사공회인

S. I. A를 심방했다.

公會의 관계인사로 MR. EOWIN CHOO를 비롯한 5인이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우리의 순방목적은 양국 단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 및 교류를 위한 것이라는 具會長의 인사말로 시작된 회담은 약 1시간30분가량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닐라에서 MR. 멘도자가 소개장까지 써준 S. I. A의 국제 담당인 MR. SIM HONG BOON은 해외여행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 재개발사업이 한창인 싱가포르

싱가폴에는 건축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1개뿐이고 교수들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이라 한다. 수학년한은 5년이며 건축사가 되자면 국가시험제가 아닌 정부의 자격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에 관한 연구또는 면학을 위한 대학원코스는 선진국인 구미제국에서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싱가포르의 건축사들의 자질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를 짐작케 된다.

회담이 끝날무렵 우리 일행이 얻고자 하는 관계자료와公會에서 발간된 책자를 기증받고 기념촬영을 마친 후公會에서 운영한다는 상설건축자재전시관을 돌아 보았다. 진열된 자재건본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물론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한 2차제품도 눈에 띄었다.

제품류는 주로 내장재와 외장재, 위생기구, 주방기구 기타 전기기구 등 다양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는 굳은 악수를 나누고 우리 일행은 그곳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구시가지의 재개발지구를 돌아보았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인 반면에 개발이 미치지 못한 곳에는 전통적인 중국풍의 많은 민가들이 초라하게 버티고 있었다. 협소한 국토와 심각한 주택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주택사업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의 주택사업을 위한 단지확보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풍요로운 물질생

활을 누리고 있는 싱가포르를 재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우리 일행은 짝짜여진 일정에 쫓기다 보니 싱가포르의 관광명소 사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음 순방국인 THAILAND의 방콕을 향해 하오 2시15분에 출발하는 SQ68편에 몸을 싣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무한한 발전을 빌며 이곳을 떠났다. < * >